

# 이제는 헌재의 시간...매주 변론 열고 최대 180일간 심리

## 본격 탄핵심판 절차 돌입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헌재)에 탄핵의 공이 넘어갔다. 헌재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헌재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부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받고 본격 탄핵심판 절차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됐고 심판 절차가 시작됐다. 헌재는 탄핵 접수 후 180일 이내에 인용 혹은 기각을 선고해야 한다.

탄핵 의결서가 헌재에 접수됨에 따라 사건번호가 부여됐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번호는 '2024헌나8'로 부여됐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16일 오전 10시 재판관 전체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구체적인 사건처리 일정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는 16일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청구서 등본을 송달하고 답변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헌재는 주심 재판관을 정하고 본격 심리에 들어간다. 주심 재판관은 통상적으로 전자배당으로 이뤄진다. 주심은 비공개가 원칙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에서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공개했다.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심리한다.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전원이 참석해 의견을 주고받는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소추 사유 등을 들여다보고 결론을 낸다.

윤 대통령 탄핵심리는 2~4주간 변론 준비 절차

오늘 헌재 재판관 전체회의 개최

尹에 탄핵심판청구서 송달 예정

노무현 63일·박근혜 91일 소요

공석 재판관 3명 조기 임명 필요

를 거쳐 정점과 증인 명단 등을 정리한 뒤 매주 변론을 열어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이 나오기까지는 최소 2~3개월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탄핵심판 변론 과정은 공개변론, 구두변론으로 진행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아도 재판은 진행된다.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고(故)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 차례도 재판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다만 심리 기간은 180일 이내지만 더 짧을 수 있다. 탄핵의결부터 선고까지 노 전 대통령은 63일, 박 전 대통령은 91일이 소요됐다.

문제는 현재 헌법재판관이 6명 뿐이라는 데 있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지난 10월 퇴임해 9명 중 3명이 공석(公席)인 상황이다.

이 때문에 헌재 결원이 빨리 나올 수 있는냐는 의문이 나오고 있다.

헌법재판소법(제23조1항)상 '재판부는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지난 10월 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가처분신청을 인용하면서 해당 정족수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상태다.

헌재는 '대통령 탄핵 사건' 역시 재판관 6명으로



1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연합뉴스

도 심리는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탄핵 심판 심리는 하더라도 결정까지는 무리라는 입장도 있다.

이에 국회가 재판관 3명을 뽑아, 권한대행을 통해 서둘러 임명해 9인 체제를 완성한 뒤 심리를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진보성향의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추천한 상태다.

국민의힘도 15일 헌법재판관 후보 3명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에는 정점식, 박규태, 김대식, 김기용, 박성훈 의원이 참여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16일부터 더불어민주당과 21일, 23~24일 사흘간 청문회를 여는 안, 23~24일

## “윤석열, 내란 수괴로서 국헌 문란 행위”

### 탄핵안에 어떤 내용 담겼나

사적 곤경 피하려 체제 전복 기도 헌법질서 훼손·절차적 요건 위반

국회에서 지난 14일 결의된 대통령(윤석열) 탄핵소추안에 담긴 내용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안을 중심으로 탄핵여부를 심리하게 돼 사실상 이번 2차 탄핵안은 의회의 공소장이나 다름없다. 탄핵안의 핵심골자는 윤 대통령이 자신이 처한 곤경을 타개하기 위해 일부 고위직 세력과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했다는 것이다.

이번 탄핵안은 지난 7일 폐기된 1차 탄핵안의 일부 내용이 빠져 있지만, 분량은 28페이지에서 16페이지가 늘었다.

1차 탄핵안에서 거론됐던 탄핵 사유 가운데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김영선 전 의원 공천 개입 의혹, 재외요구권 남용 등은 생략됐다.

2차 탄핵안은 윤 대통령 내란혐의에 초점을 맞

췌다. 대통령 탄핵 소추 사유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 내란 수괴(우두머리)로서의 국헌문란 행위 등이다.

12·3 비상계엄은 전사·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과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군사상 필요에 따라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선포해야 한다는 조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계엄이 선포되기 전까지 국가비상사태로 불만한 어떠한 이상 징후도 찾아볼 수 없으며, 반드시 "병력으로써" 이에 응해야만 했던 어떠한 상황도 없었다는 게 이유다.

계엄 선포는 절차적 요건도 위반했다고 적시했다.

계엄 선포 절차는 국방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의 국무총리를 거쳐는 건의를 통해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계엄선포시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에서다. 계엄선포시 지체없이 국회 통고해야 하는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제시했다.

계엄 선포 전 열린 국무회의는 5분 만에 종료됐

고, 국무위원 상당수가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윤 대통령은 대국민담화 시작 1분 전에 국무회의를 끝내고 계엄 선포를 발표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할 때는 이유, 종류, 시행일시, 시행지역과 계엄사령관을 공고해야 함에도 어떠한 계엄 공고도 확인되지 않았으며, 관보에도 해당 공고를 찾아볼 수 없었다는 주장이 담겼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후 무장한 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무력화한 점도 탄핵안에 담겼다. 윤 대통령은 군과 경찰을 이용해 무력으로 국회를 봉쇄·진입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역의 평온을 해하는 등 무장·폭동하고, 계엄선포권을 남용해 국회의원의 의견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침해하고, 국회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등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을 막았다고도 했다.

내란의 공범으로는 국방부장관 김용현, 법무부장관 박석재,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인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수도방위사령관 이진우, 특수전사령관 박종근, 경찰청장 조지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등이 지목됐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국힘 최소 12표 탄핵 찬성한 듯

기권 3표·무효 8표로

예상보다 이탈표 많아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가결 과정에는 '국민의힘 이탈표 효과'가 결정적이었다. 특히 표결 하루 전까지 국민의힘에서 찬성 입장을 표명한 의원이 7명으로, 1명이 부족해 야권이 애를 먹기도 했다.

하지만 최소 국민의힘에서 탄핵 찬성 12표가 나왔고, 기권 3표·무효 8표가 나와 생각보다 이탈표가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지역 기초·광역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에게 손편지를 써 표결 참여와 찬성할 것으로 권유했고, 민주당 의원들도 총동원돼 '채워지지 않은 1표'를 찾기도 했다.

이날 표결에서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여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전체 300명 의원 중 204명이 찬성한 만큼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이 찬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범야권 192명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표결에 참여하면 탄핵안 의결정족수(200명)가 충족

돼 투표가 성립되고, 여당에서 찬성이 8표를 넘으면 탄핵안은 가결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날 국민의힘 이탈표가 탄핵안 가결의 결정적 역할을 했다.

특히 앞서 찬성 의사를 밝힌 7명보다는 마지막 1명의 '찬성 선언'이 부담이 큰 만큼, 본회의 표결 막판까지 추가 찬성 의사를 밝히는 국민의힘 의원이 나타나지 않아 야권의 애를 태우기도 했다.

이날도 국민의힘 내부에서 찬반 의견이 팽팽해 마지막 순간까지 이탈표 부족으로 탄핵안이 부결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도 감돌았다.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담화에 대해 "사실상 내란을 자백했다"며 '탄핵 찬성' 당론 채택을 제안하면서 '친윤석열' 계와 충돌했다.

이에 친한계 진중오, 한자아 의원은 이날 탄핵안에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고, 앞서 친한계 조경태 의원과 비윤(비윤석열) 성향의 김재섭·김상욱 의원이 찬성 입장을 표명했다. 또 1차 표결에서 안철수·김기에 의원은 찬성 투표했었다.

이에 민주당과 진보당, 조국혁신당은 이날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국민의힘을 겨냥해 표결 참여와 찬성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오전과 오후 연이어 의원총회를 열어 표 단속에 나서는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오광록 기자 kroh@

함께하는 100년 동행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꼭!

**조희,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꼭 바로 바로 확인까지 꼭!

**zgm.the pay 카드**

- 비대면 발급전용 상품
- 국내 해외 전 가맹점 10% 할인
- N-페이 온라인 결제 1.7% 할인
- 10대 페이 온라인 결제 1.2% 할인
- 전월 실적 제한없음

**(우) All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20만원(이상 90일 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 특약 가입 시 월 5만원으로 만기 시 89% 환급 (매월 변동 가능, 공시율 2023년 6월 기준)

**서광주농협에서 더 편한 환전·해외송금을 맡아다**

환전부터 해외송금까지 수수료 우대 적용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저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 362-8400~6 FAX. (062) 362-8407

용 산 지 점 062)526-0222~3	유 동 지 점 062)512-1984~5	유 덕 지 점 062)373-3235~6	운암박산지점 062)529-5335~6	동림하나로지점 062)531-7745~6
치 평 지 점 062)381-8212~3	동 립 지 점 062)513-8521~3	동 운 지 점 062)528-2640~2	빛 고을로지점 062)531-1213~5	로컬푸드(시정) 062)364-8400
쌍 촌 지 점 062)381-6551~2	운 암 지 점 062)527-3295~6	배 들 지 점 062)381-1971~2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유덕하나로마트 062)373-3235
화 정 지 점 062)372-0421~3	운 천 지 점 062)371-2772~3	상 무 동 지 점 062)372-3741~2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애니로마트등림점 062)511-2901~3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